

한국여성개발원 조사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며 사는 저소득층 가족의 절반 이상이 적자생활로 허덕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저소득층 모자가족들의 월평균 총가구 소득액이 16만7천3백99원에 지출액은 17만6천34원으로 전체가구의 50.5%가 적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사실은 한국여성개발원이

이들의 하루 취업시간은 평균 11시간35분에 가사 노동시간 3시간9분을 포함하면 하루 14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2만6천4백원으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주거형태도 46.1%가 월세, 16.2%가 전세를 살고 있으며 60.7%의 가구가 방 1개에서 평균 2.8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가 자녀부양하는 모자가족 절반이상이 적자생활

1천9백20명의 모자 가구주 실태 조사 결과 최근 펴낸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현재 추산된 모자가족은 84만9천호로 전체 가구수의 8.9%를 차지한다.

조사대상 모자 가구주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파출부가 23.7%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부문 종사자(19.4%), 제조업 노동자(18.1%), 행상·노점(9.8%) 등의 순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자금(64.2%), 주택장만(54.0%), 자녀교육비(50.4%) 등의 용도로 모자 복지자금을 대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여성개발원은 이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24일 모자복지법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보사부 부녀복지과에 시안을 제출하여 현재 민정당 보사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중에 있다.

아버지 없는 자녀에 학자금

월소득 50만원미만 가정 양육비도 지급

저소득 계층으로 아버지가 없는 세대에 아동양육비와 자녀학자금이 지급된다.

보사부는 14일 4명가족 기준 월소득 50만6천원 미만인 저소득 모자가정의 3살 이하 영아 3천1백36명에게 내년 한해 동안 모두 3억6천6백만원의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중학생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18살 미만의 자녀를 두고 남편없이 살고 있는 저소득층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대상자로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미혼모 홀로서기' 탁아시설 큰 성과

미혼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기를 수 있게 돕는 '미혼모자세대 지원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미혼모 대책은 주로 자녀 입양알선 위주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혼모가 자녀를 입양시키지 않고 기를 수 있도록 지난 89년부터 미혼모 자녀를 맡아주는 탁아소를 운영해온 미혼모 보호시설 '애란원'의 지

원사업이 미혼모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89년 이후 애란원을 찾아와 자녀양육을 원한 미혼모 30명

가운데 90% 이상이 탁아소에 아기를 맡긴 뒤 취업대책을 마련, 자녀를 기르고 있다.

애란원 한상순 상담위원은 "미혼모의 자녀를 맡아주는 탁아프로그램이 많아진다면 미혼

모 자녀의 입양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혼모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60만원이 '시설에 6개월 이상 거주

하고, 3개월 이내 혼인 및 출생신고한 자'로

한정돼 있어 미혼모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을 못하고 있다"면서 미혼모들이 퇴소 뒤에도 자녀를 계속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속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한씨는 말했다.